

I. 世界石油需給動向 및 전망

1. 80년대 需給動向

(1) 供給 동향

世界石油 수요는 지난 79년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世界石油市場 동향과 油價전망



金泰坤
(動資部 石油調整官)

83년 하반기 부터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하기까지 매년 5~6% 정도의 감소를 계속하여 왔다.

84년의 경우 상반기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하반기 부터는 보합세를 보여 왔고, 8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세를 보여 自由世界의 경우 84년에 46.1 백만B/D수요가 85년에는 45.6백만B/D의 실적을 남기게 되었다.

세계 석유수급 추이

	1978	1979	1980	1984	1985
자유세계 석유수요(백만B/D)	50.6	52.4	49.7	46.1	45.6
자유세계 석유생산(백만B/D)		53.7	50.4	45.9	45.5
OPEC	29.8	31.6	27.6	18.5	17.2
비OPEC	18.6	22.1	22.8	27.4	28.3
석유 비중(%)	45.9	45.0	43.5	39.5	38.4
우리나라					
석유 수요(천B)	164,254	185,377	183,497	194,559	191,689
석유 비중(%)	63.5	62.9	61.3	52.3	48.7

(資料) IEA, BP

供給측면에서는 그동안 石油대체에너지의 공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가장 큰 변화는 非OPEC 산유국의 급격한 석유생산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英國, 노르웨이의 北海석유로서 北海유전의 석유생산은 제 1 차 석유위기 이전인 19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석유위기가 진행되는 高油價 시기에 신규유전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英國과 노르웨이의 산유량은 74년에 3만5천B/D 이던 것이 84년에는 3백29만B/D로 증가하였다.

다음의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은 멕시코가 74년의 64만B/D에서 84년에는 301만B/D로 증가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印度, 말레이시아, 브라질, 오만 등 비교적 소규모의 산유국들도 84년에는 50만B/D정도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OPEC과 非OPEC간에 대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OPEC는 78년에 29.8백만B/D, 79년 31.6백만B/D의 증가를 보이다가 80년에는 27.6백만B/D, 84년 18.5백만B/D를 보였고, 85년에는 17.2백만B/D로 급격히 줄어든 반면, 非OPEC는 78년 18.6백만B/D, 79년 22.1백만B/D, 80년 22.8백만B/D, 84년 27.4백만 B/D, 85년 28.3백만B/D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OPEC과 非OPEC의 力學關係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총에너지중 石油수요 비중이 79년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 비추어 非OPEC의 공급

1979-84 OPEC 산유량 감축

	감 축 량 (백만BD)	'79 대비 감축율 (%)	'85.1~9월생산량 (백만BD)
OPEC計	13.1	41.5	16.6
사 우 디	4.8	52.0	2.9
이 란	0.98	31.0	2.2
이 라 크	2.27	65.4	1.3
쿠 웨이트	1.30	58.8	0.8
U A E	0.71	39.1	1.1
베네수엘라	0.66	27.9	1.5
알 제 리	0.52	44.7	0.6
리 비 아	1.02	48.8	1.0
나이지리아	0.92	40.1	1.4
인도네시아	0.12	7.7	1.2

自由世界の 石油需給

(단위 : 백만B/D)

	1979	1982	1985	年間증감율			
				1979-85	case1	case2	case3
세 계 소 비	52.4	46.0	45.6	-2.3%	40.6	46.0	48.7
● 선진국	41.6	34.6	33.8	-3.4%	28.3	33.7	36.3
● 개도국	10.8	11.4	11.8	1.5%	12.3	12.3	12.4
재 고 변 동	1.3	-1.1			0	0.	0
非OPEC공급	22.1	25.1	28.5	4.3%	34.1	30.0	30.0
OPEC 공급	31.6	19.8	17.1	-9.7%	6.5	16.0	18.7

679년 이후 자유세계의 石油수요는 감소일로에 있으나 非OPEC의 産油量은 오히려 증가추세

량이 매년 신장되고 있음은 상대적으로 OPEC공급량 축소가 앞으로의 세계석유시장 정세를 예측키 어렵게 할 뿐 아니라 OPEC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시장지배력을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특징

1983년 3월의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국제석유시황은 1970년대와는 시장운용면이나 구조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5년 9월부터 시작된 사우디의 네트백 판매방식으로서의 전환, 1985년 12월 제76차 OPEC정기총회에서 채택된 OPEC의 시장 몫 확보선언과 이를 계기로 실세화된 OPEC와 非OPEC의 정면 충돌, 이에 영향받은 국제원유가격의 폭락 등 작금의 시황을 가져 오게 된 80년대 세계석유시장의 특징은

첫째, 세계경기 침체와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 석유대체에너지 개발과 이용 증대, 석유소비의 가격탄력성 증가, 석유이용의 효율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 구조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석유소비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둘째, 수요공급의 일반원칙이 국제석유시장에서도 적용되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원리가 예외없이 적용되어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째, OPEC은 1970년대 전세계 산유량의 75%수준을 장악했으나 1980년대에는 35%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非OPEC의 시장점유율이 높아감에 따라 OPEC와 非OPEC간의 시장 몫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네째, 수요는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공급은 1970년대 기간중 높은 原油價 상승에 따른 신규전개발 확대 등으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비 고도화

추진에 따라 低硫黃輕質原油의 선호도가 낮아지고 산업 부문의 석유 대체 촉진과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석유 수요가 輕質化되어 제품간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으며,

다섯째, 원유 거래 방식이 장기 계약 방식 위주에서 장기 계약과 現物去來方式으로 二元化 되고 더우기 현물 시장 도입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 할인, 바터 거래, 외상 기일 연장, 네트백 판매 등 거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 가격도 실제 가격을 반영하여 장기 계약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껴진다.

특히 세계 석유 수급 전망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대부분의 요인은 不安定性과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민감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그동안 석유 분석 기관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에도 불구하고 석유 자원의 경제성과 편의성,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한계, 에너지 수요 구조 조정의 경직성,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개발의 불투명 등을 고려할 때, 2000년대까지는 石油가 主宗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담당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

● 두 차례의 石油 파동에도 불구하고 석유 자원의 경제성과 편의성, 대체 에너지 개발의 한계, 에너지 수요 구조의 경직성 등 諸 요인을 고려할 때 2000년대까지는 石油가 主宗 에너지의 위치를 고수할 듯 ●

여섯째, 石油 수요 신장세의 둔화에 따른 石油 공급과잉 현상의 장기화, 정제 시설의 遊休化, 산유국의 下流部門 진출 확대, 石油 개발 비용의 상승 등 石油 産業의 경영 여건 악화로 메이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石油 業界가 구조 개편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일곱째, OPEC은 石油의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自國內 정제 시설 확장과 소비국의 정제 시설 매입 등 석유 제품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확장 중에 있는 정제 시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1987년경에는 제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석유 시장 동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세계 석유 시장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석유 환경의 전개에 따라 생산국과 소비국은 1980년대의 시장 안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1990년대의 에너지 不足時代에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2. 中長期 수급 전망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되는 국제 석유 시황을 목격하면서 중·장기 전망을 예측한다는 것은 마치 열대 지방에서 소나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느

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차 에너지 消費 추이

	1974		1980		1984		1985	
	백만TOE	%	백만TOE	%	백만TOE	%	백만TOE	%
석유	2,760.3	46.4	3,002.0	43.5	2,844.5	39.5	2,811.7 ¹⁾	38.3
가스	1,088.1	18.3	1,236.8	18.8	1,409.9	19.6		
석탄	1,691.2	28.5	2,006.4	29.1	2,179.6	30.3		
수력	343.7	5.8	421.6	6.1	485.4	6.7		
원자력	62.4	1.0	169.4	2.5	282.2	3.9		
計	5,945.7	100.0	6,896.2	100.0	7,201.6	100.0	7,345.6 ²⁾	100.0

註: 1) IEA 推定

2) 動資研 推定

(1) 수요 전망

DRI가 예측하고 있는 세계의 石油 수요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의 교환과 새로운 제 3의 석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국들의 에너지 利用 효율의 제고, 석유 소비 억제, 代替 에너지 개발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므로 세계의 석유 수요는 2000년대까지 0.9~1.9%의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고 OECD 제국들은 1990년까지는 1.3%,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0%,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0.3%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기타 국가들은 2.1%, 1.8%, 1.4%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1990년대를 기점으로 非OPEC의 공급량

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OPEC의 공급량은 2000년까지 약 3.3%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IEA가 예측하고 있는 자유세계의 석유수요 전망을 보면, OECD제국의 석유수요는 1983년의 경우, 하루 33.8백만 배럴 수준에서 약간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하루 35백만 배럴 수준에 이를 것이며, OECD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업화의 진전 등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2000년 경에는 하루 18백만 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석유수급전망 (단위: 백만B/D)

	1985	1990	1995	2000	증가율 (%)		
					85-90	90-95	95-2000
세계需要	57.0	62.1	68.3	71.4	1.7	1.9	0.9
OECD	27.4	29.3	32.4	32.9	1.3	2.0	0.3
기 타	29.6	32.8	35.9	38.5	2.1	1.8	1.4
세계供給	57.7	61.8	68.0	71.4	1.4	1.9	1.0
OPEC	17.0	21.0	28.2	33.1	4.3	6.1	3.3
非OPEC	40.7	40.8	39.8	38.3	0.05	△0.5	△0.8

(註) 공산권포함
(資料) DRI(85.12)

自由世界の 石油需給展望 (單位: 百萬B/D)

	1990	1982	1983	1990	2000
需 要		45.2	44.4	49	53
OECD		34.6	33.8	35	35
開途圈(OPEC包含)		10.6	10.6	14	18
供 給		44.7	44.3	49	53
OECD		15.3	15.8	15	13
OPEC		19.8	18.4	24	29
非OPEC開途國		7.0	7.3	9	10
共産圈으로부터의輸入		1.5	1.6	0.5	0
其 他		1.1	1.2	1	1

(資料) IEA.

(2) 공급 전망

세계의 석유확인 매장량은 약 6,693억 배럴로서 1983년 생산량 207.5억 배럴을 기준하여 약 32년간의 가채년수에 해당되나, 과거추세의 경우 매장량이 계속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신규 油田 개발, 석유수요의 신장세에 따라서는 가채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적인 매장량의 한계와 부존지역의 편재 등 생산측면의 제약요건을 감안하면 자유세계의 석유 공급량은 하루 53백만배럴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OPEC의 공급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공급상 애로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유자원에 대한 OPEC의 영향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世界에너지資源 埋藏量

	石 油	石 炭	天然가스	우라늄	新再生에너지(탈산드, 오일세일, 오일샌드)
窮極埋藏量 (1)	1.4兆~ 3.1兆배럴	10兆톤	195兆~ 340兆m ³	9.7~	
確認埋藏量 (R)	6,693億 배럴(2)	6,870億 톤(3)	90兆m ³ (4)	2,860千톤 (5)	4,100億톤 (6)
OECD	8.9%	46.6%	14.8%	59.9%	97.6%
OPEC	64.5	0.2	31.4	10.6	-
共産圈	12.6	38.6	45.2	0.3	1.4%
開途國	14.0	14.6	8.6	29.2	1.0%
生産量 (1983. 9)	207.5億 배럴(7)	40億톤(8)	1.56兆m ³ (9)	36,426톤 (10)	少 量
可採年數 (R/P)	32.3	171.8	57.7	78.5	-

(註) : (1) 第10回 世界에너지會議(1979, 1980)

(2) (4) O.G.J(1984. 1. 1)

(3) (6) 世界에너지會議(1980)

(5) B. P(1984. 1. 1)

(7) P. I. W(1984. 3. 14)

(8) (10) B.P(1984. 6)

(9) O.G.J(1984. 3. 12)

II. OPEC동향

1. 제76차 정기총회

OPEC는 지난 해 12월 7일 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76차 정기총회에서 세계석유시장에서 OPEC의 석유생산이 꾸준히 감소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석유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OPEC는 25년 역사에서 가격문제를 떠나 시장점유율 방어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는 앞으로의 세계석유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OPEC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지난 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빚어진 국제석유정세의 변화와 회원국들로 부터 뿌리깊게 제기되어 온 증산 요구, 사우디아라비아가 채택한 네트백 판매방식 등 여러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당초부터 안고 있었다.

결국 OPEC의 시장점유율 방어 선언은 지금까지 OPEC의 감산에 구애받지 않고 증산을 계속해 온 非OPEC 산유국에 화살을 돌려 증산정책에 쉼표를 박고자 함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PEC은 이번 OPEC의 非OPEC 산유국에 대한 최후 통첩임을 강조하고 非OPEC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非OPEC은 석유증산정책을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非OPEC 가운데 OPEC의 비난의 초점이 되었던 英國은 私企業의 생산을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北海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된 생산 설비를 유희화 시킬 수 없어서, 소련과 멕시코 등은 외환부족을 이유로 OPEC의 증산자제 요청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증산정책은 늦추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제76차 OPEC의 총회특징을 보면, 20세기 최대의 경제카르텔로서 세계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OPEC의 카르텔이 와해되었고, OPEC과 非OPEC간의 가격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의 네트백 판매 방식이 공식화 되는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 카르텔의 와해

OPEC의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인 오하이바 UAE 석유상은 지난 2월초 『OPEC의 25년간에 걸친 公式 油價 체제가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치열한 경쟁상태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OPEC의장인 인도네시아의 수보르토 석유 장관은 OPEC의 공식정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강조하였으나, 세계의 저명한 석유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OPEC의 기준油價체제가 사실상 85년 9월부터 완전히 붕괴되어 OPEC가 더 이상 카르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OPEC측의 숨은 목적은 과거와 같은 카르텔의 위력을 회복하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石油의 放賣와 가격폭락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인

● OPEC의 시장점유율

방어선언은

지금까지 증산을 계속해 온

非OPEC産油國에 대한

최후 통첩●

도네시아와 같이 외채가 많은 OPEC 회원국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멕시코와 같은 非OPEC외채국에도 OPEC의 전략이 결실을 맺게 되어 세계석유공급체제는 범세계적인 판매카르텔 체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OPEC시장점유율추이

(단위 : 천B/D)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전세계 ㉔	58,620	55,700	60,085	62,560	63,050	65,775
OPEC ㉕	31,055	27,530	31,090	31,690	30,275	31,470
B/A	52.9	49.4	51.7	50.6	48.0	47.8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전 세계	62,745	59,375	7,020	56,705	57,800	57,000
OPEC	27,450	23,390	9,935	18,475	18,345	16,100
B/A	43.7	39.3	34.9	32.6	31.7	28.2

註:85년은 3·4분기 기준

3. OPEC와 非OPEC의 충돌

그동안 석유시장의 몫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도 적극 대결을 피해왔던 OPEC와 非OPEC이 양측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우디와 英國이 마침내 정면충돌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自國産 석유의 절반을 네트백 방식으로 팔아온 사우디는 최근 極東지역 원유탱크의 상당량을 日本 등에 팔기 위한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제네바 OPEC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시장점유율 보호선언을 실천기 위한 가격공세로 풀이되고 있다.

OPEC측이 이처럼 가격공세와 시장확보를 서두르는 것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非需期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여 앞으로 있을 非OPEC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것은 세계석유시장의 축소와 석유의 회소가치 상실 등에 따른 산유국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다.

70년대까지는 세계 石油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거의 맞아 시장 다툼의 문제가 될 수 없었으나, 79년의 2차 석유위기 이후부터 산유량은 증가되는 반면, 수요는 매년 5~6% 정도 감소되어 왔고 에너지소비절약 등 대체에너지개발에 모든 소비국들이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70년대와 같은 상황은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여기에 OPEC와 非OPEC간의 판도변화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고 이는 곧 양자간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사우디의 가격전략(네트백 판매방식)

(1) 배경

198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舊아람코 파트너 3社와 네트백方式에 의한 80만b/d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이미 85년 6월경부터 사우디의 석유정책, 특히 가격전략의 전환을 시사하는 징조가 점차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① 6월초 사우디의 다이후에서 개최된 OPEC 각료집행위원회에 전달된 파드國王의 친서에서 「사우디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는 규율위반이 계속 된다면 증산과 가격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점.

② 그 1개월 후에

- 「다른 가맹국이 협정위반을 그만두지 않으면 사우디는 할당된 上限까지 증산할 것이며 원유가격은 2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야마니 石油相의 경고

- 사우디는 7월 총회가 결렬될 경우, 증산으로 전환, 증산분은 전량 네트백 方式으로 판매할 방침으로 메이저를 불러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

- 원유가격이 25달러를 하회할 경우 사우디는 大増産으로(700만b/d) 15달러까지 인하하여 非OPEC 油田에 타격을 준 다음 減産으로 전환하여 30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화 시킨다는 「덤핑계획」이 APS誌에 보도되었다.

- 7월 총회의 前半(각료회의로 대체됨)에 사우디는 생

● 非OPEC와의 대화에 앞서 OPEC 내부적 문제해결이 사태해결의 관건●

산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약속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 등이었다.

GSP로의 판매를 오직 혼자 버티어 온 사우디가 드디어 그 입장을 포기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만b/d 가까이까지 떨어진 사우디의 생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네트백의 方式을 채택한 것은 사우디의 결의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표시였다.

(2) 최근의 동향

사우디는 석유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네트백 판매를 계속 확대할 움직임이다. 日本과의 네트백 계약을 계속 추진중이며 네트 백 기존계약 물량중 G-G 베이스 200천B/D를 계약갱신하였고 계약만료물량도 계속 연장 갱신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트백 물량은 향후 300만 B/D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수준도 4.5백만B/D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약 30여개의 네트백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계약방식으로 인해 大西양연안 및 수에즈동부지역 판매망을 다량회복하였다.

그러나, 네트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제품판매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부와 주바일 정유공장의 300천B/D 가량의 제품 물량은 전량수출이 되지 않고 있어 재고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이미 재고수준은 60백만 배럴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네트백 판매에 있어서도 86. 2월초 현재 아라비안 라이트의 네트백가격이 美國 걸프에서 배럴당 15달러, 북서유럽지역에서 17달러 수준이므로 판매이익이 격감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제품수요감소로 네트백가격은 이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86년 1

월초 A/L의 네트백 가격은 배럴당 22.75~24.00달러 수준이었으나, 1월말에는 18~18.50달러로 떨어졌으며 통상 북서유럽의 네트백 가격이 美國 걸프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77차 OPEC임시총회에서 야마니 석유상이 밝힌 사우디의 입장은

- OPEC의 합리적인 생산쿼터는 1,600만B/D 이상이어야 하며

- OPEC의 시장점유율 증대만이 石油價 불안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 石油價안정을 위해서는 英國을 포함한 非OPEC산유국들의 협력이 진요하며 現 13\$/B 이하의 油價는 北海産油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사우디 네트백방식 販賣現況

(單位: 千B/D)

메이저 1,070	유럽 425	美洲 235	極東進出메이저450	其他 230
엑슨 340	Motor Oil Hellas 125	페트로바스75	칼텍스 250	바레인 100
텍사코 200	Neste 50	Champlin 60	모빌 100	台灣 60
모빌 180	Garrone 50	에시랜드 50	엑슨 100	韓國 50
세브론 100	Saras 50	마라톤 50	日本石油 270	파키스탄20-35
셸 100	Cepsa 50		三菱石油 100	
BP 100	Enpetrol 50		共同石油 70	
CFP/ELF 50	Turkey 50		Marubeni 50	
			三井石油 50	合計 2,680

(資料) PIW

5. 77次 임시총회

3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第77차 임시총회는 9일동안 회의를 계속 하였으나 회원국 石油相들은 OPEC의 산유량 감축을 통한 油價回復을 도모한다는 原則確認에만 그쳤을 뿐 國別생산량 조정에는 실패한채 일단 휴회에 들어가 오는 4월 15일 회의를 속개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총회기간중 非OPEC産油國과의 연석회의를 가지면서 산유량 감축을 도모했으나 쌍방은 油價回復 勢力에 협력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번 總會가 결국 國別生産쿼터 조정에 실패한 이유는

- 문제가 회원국 각국의 國益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 아직도 많은 회원국들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연 국가들에 대해 보다 큰 폭의 양보를 기대하는 반면

- 사우디는 油價戰爭이라는 값비싼 代價를 치러온 만큼 차제에 OPEC에서의 自身の 영향력신장을 통해 OPEC의 규율을 정착시켜 보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쉽게 양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 會員國 모두가 조속한 油價回復方案講究 원칙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 감산조치의 단행과 이의 충실한 준수만이 油價回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자각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 사태해결의 관건이 非OPEC과의 대화에 앞서 OPEC 내부적 문제해결 선행에 걸려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III. 국제원유가 전망

1. 최근의 油價하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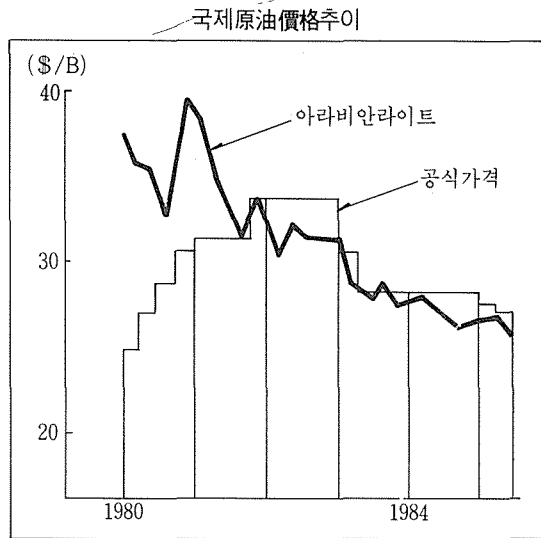
국제원유시장에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원유가격 이하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난 12월 제76차 OPEC정기총회를 계기로 표면화된 OPEC의 시장 몫 확보선언과 이로 인한 OPEC과 非OPEC간의 가격전쟁, 그동안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사우디의 태도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70년대에 겪은 2차례의 석유위기로 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태와 연결되어지는 요인이 최근의 가격폭락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985년 3/4분기까지의 국제석유가격은 다른 상품처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4년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가격조정이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구조의 변화와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변화를 반영한 독특한 조정패턴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PEC은 1973년 10월 배럴당 2.80달러 하던 原油를 3배 이상 인상하고 연이어 1979년, 1981년에 계속적인 인상조치를 강행하여 1981년에는 무려 38달러까지 인상하여온 高油價정책은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를 비롯한 非OPEC국들의 유전개발과 원유 생산을 확대하였으며,

LNG, LPG, 원자력, 발전, 석탄, 태양열 이용 등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절약을 강요하게 하여 원유생산과 석유경제의 대규모 과잉능력과 석유의 잉여 재고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81년 가을의 가격조정은 사우디의 가격인상에 의한 가격 조정 통일이었기 때문에 타국의 원유가격이 내려도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으며 무리한 것이었다. 그 결과 82년 봄에는 강력한 가격인하 압력에 눌려 스파트, 네트백 가격 모두 대폭하락 하였고 그 후 시황이 격심한 변동을 되풀이 하면서 불안정한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2. 油價폭락의 억제요인

국제원유가격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의 물음이다. 과연, 사우디가 네트백 방식을 채택하고,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 약수를 이행치 않고 가격인하와 대폭적인 생산증대라는 극한 수단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결코 국제원유가격의 폭락은 당분간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예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건한 입장을 지지해 온 사우디의 대원칙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원유가격의 폭등과 폭락의 방법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측을 불허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없고 보면 원유가격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만은

● 사우디政府는 國際原油價가 배럴당 20~22달러에서 안정되기를 희망●

않을 것이라는 이유들을 찾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되어진다.

첫째, 현재 달러의 강세가 시정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러강세는 83년 봄 5달러 하락한 후에 급격히 진행되어 85년초에 절정에 달했다. 그 결과 각국 통화로 본 原油가격은 최근까지 5달러 하락을 상쇄하고도 많은 여유를 남기게 되었다. 이것은 석유회사의 하류부문 손실을 확대시키고 원유가격 인하 압력에 박차를 가했다. 향후 달러강세 시장이 정착된다면 이러한 점에서의 가격인하 압력은 없어질 것이며 수요에 대한 가격효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둘째, 78년은 제 1차 석유위기의 쇼크를 흡수하여, 세계경제와 에너지·석유수요가 새로운 확대국면으로 접어든 해였다. GSP, 스파트, 네트백이 일선에 나와 있었으며, 79년부터 연10% 정도의 가격인상이 시작되려는 때였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 2차 쇼크를 흡수하고 다음의 확대 균형으로 진행할 가격수준에 접근해 갈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非OPEC油田의 공급코스트에 의한 가격하락 방지이다. 美國원유의 경우 평균적으로 말해서 井戶渡가격이 20달러까지 떨어지면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매장량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3~25달러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83년의 달러가치로 보아서). 또한 北海원유의 경우도 원유가격이 25달러면 3~4달러의 이익이 나오지만, 20달러까지 하락하면 2달러로부터 적자로까지 악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격이 20달러 또는 그 이하로 폭락해도 조업비를 회수하기만 해도 캐시플로가 입수될 수만 있다면 油田은 원리적으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高코스트 油井은 폐쇄되고, 새로운 탐사개발투자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탐사개발 지출을 검토해

보면, 北美에의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굴착수 역시 北美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北美유전은 발견코스트가 매우 높고 추가매장량도 적다. 또 83년 이후 탐사개발투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발견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자유세계의 R/P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은 주로 생산량 감소에 의한 것이며, 추가매장량은 감소추세이다. 中東지역 이외에서는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추가매장량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서 R/P는 감소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유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그 후 일시적으로 안정(보합세)을 계속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탐사개발이 쇠퇴하고 원유공급력이 약화될 것이다. 만약 油價가 폭락할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돼 油價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네째로, 경합에너지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석탄의 공급코스트는 기존탄광의 대부분이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다 해도 결정적인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나, 신규탄광이나 高코스트탄광은 특히 수출시장으로부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종소비시장에서의 경합을 보면, 석탄의 경우 西獨이외에서는 석유

와의 가격경쟁력은 유지되지만,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석유가 20달러선에 이르기 전에 가격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가격인하 압력에 견뎌내지 못할 경우 석유에의 역전환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신규 LNG 프로젝트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 油價 전망

(1) 日本 에너지經濟研 展望

향후 2년동안 油價가 배럴당 14~18달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日本 에너지 經濟研究所는 최근 국제석유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OPEC와 非OPEC 산유국간에 약간의 산유량 조정이 이루어져 油價가 20~23달러를 유지하더라도 신규 油田開發과 대체에너지개발이 가격경쟁면에서 장애받지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2) 美專門家の 展望

사우디는 油價가 12\$/B수준까지 떨어져야 현 생산정책을 재고할 것이라고 美석유분석가이며 C. J. Lawrence Inc. 부사장인 Maxwell이 밝혔는데 油價가 그 수준으로 떨어졌을 경우 산유국들이 산유량 감축에 실패한다면 油價는 또다시 배럴당 8달러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Nymex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油價가 12\$/B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아마도 사우디보다 먼저 다른 산유국들이 그들의 생산정책을 재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우디의 장기 목표는 70년대 유가폭등으로 대체에너지源에 빼앗긴 석유 수요를 회복시킨 것인데 세계 제1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로서는 低油價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가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우디는 OPEC를 전통적인 가격유지기능보다는 효과적인 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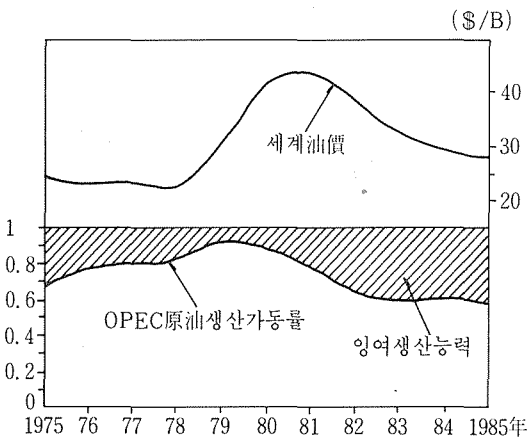
(3) 사우디의 希望

사우디 정부의 전략은 다른 광물과 産業商品을 포함한 다변화 협정을 통해 국제원유가를 20~22\$/B선에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사우디 정부부 대변인이 Platts Oilgram N/W紙와의 회견에서 밝혔다. Ahmad Al-Tuwaigri 대변인은 이 협정에 北海産코스트가 10\$/B인 英國과 노르웨이도 동참하도록 自國은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

1. 2차 석유위기 전후의 가격추이 (단위: \$/B)

종류	1972	1973	1974	1979	1980	1981	1983	1985
아라비안라이트·공식가(\$/B)	2.47	5.17	10.95	24.00	32.00	34.00	29.00	28.00
·현물가(%)	-	-	-	41.00	39.30	34.15	28.30	27.95
브렌트·공식가(%)	-	-	-	26.02	36.25	36.60	30.00	26.65
·현물가(%)	-	-	-	-	-	-	30.35	25.95

油價와 OPEC原油생산 가동률



가들은 油價가 앞으로 더 폭락할 경우 이를 더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잉여생산국들의 이 협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油價가 계속 떨어질지라도 사우디정부는 궁극적으로 油價가 배럴당 20~22달러에서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油價 안정을 위한 장기해결책은 일 반무역협정에 원유, 製品, 石油化學製品, 그리고 선진국들의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OPEC와 선진국들간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限 4월 회의 재개시까지 배럴당 10달러 또는 그 이하 水準으로까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는 아직까지는 自國生産쿼터 조정에 대해 경직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별생산쿼터 조정이 어느정도 합의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生産監視制度問題」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도 있으며, 사우디의 생산쿼터 조정도 이 문제와 연결되어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油價展望은 국별쿼터 조정의 합

● 政府는 국제원유가가 계속 하락하여 原油도입단가가 더 내려갈 경우 하락분은 가급적 基金으로 흡수하여 국제유가변동 등에 대처하는 한편 産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할 터 ●

그러나 적정선을 넘어서 原油價의 폭락은 제3의 석유 위기를 예견한다는 논리에 따라 최근의 油價下落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日本 정부는 최근과 같은 원유가격이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국제원유가의 폭락방지를 위하여 歐美주요 선진국과 가격안정을 위한 공동전략을 제안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계석유시황 회복을 위해 각국이 원유비축을 증대할 것과, 주요국의 에너지담당장관의 정기 협의기구를 창설하고, 에너지 상호대체 이용의 신기술을 공동개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와다나베 通産相은 3월 8일 訪日중이었던 헤링톤 美에너지長官에게 이를 정식 제안하고 이어서 歐州 각국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며, 선진국 결속 강화를 위하여 5월 東京정상회담 전에 산유국과 소비국 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英國에 대해서는 北海원유의 가격방임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이다.

(4) 展望

77차 임시총회가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國際石油市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油價하락이 예상되고 있으며 會員國들의 획기적인 이견조정 가능성이

의 여부, 監視制度에 대한 재거론여부, 非OPEC과의 새로운 협상개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油價는 민감한 영향을 받으면서 7월 정기총회까지는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現物市場原油價 (3월27일 현재) (단위: \$/B)

油 種	네 트 백	現 物
A-L	15.60	n.a
Oman	16.17	10.90
Dubai	15.61	10.65
Bonny Light	16.79	12.90
Brent	16.73	12.15
W.Texas Ins	16.70	12.00

IV. 우리의 대응

1. 油價引下

지난 2월 20일 국제석유가격 하락세를 한발 앞서 국내에너지가격에 반영하여 석유류가격을 평균 12.93% 인 하 조정하였으며, 3. 30일에는 또 다시 85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석유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

라 국내원유도입 복합단가가 상당폭으로 하락함으로써 국제油價 하락세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국내유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가 油價를 조정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原油導入 單價를 86. 3월 도입분의 잠정실적치인 18.34\$/B를 적용하였고 원유도입단가 하락분중 50%는 國內油價에, 나머지 50%는 기금과 관세로 각각 25씩 반영하였다.

정부는 향후국제원유가가 계속 하락하여 原油導入單價가 더 내려갈 경우 國際油價의 정착수준과 각국의 대응내용 등을 감안하되 하락분은 가급적 基金 등으로 흡수하여 국제유가변동 등에 대처하는 한편,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에 상응한 에너지소비절약 기풍의 이완 방지와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제고 투자와 관련 기술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계획이다.

2. 대처방안

국제원유가격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非產油工業國으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石油 수입대전의 감소로 국제수지가 좋아지고, 수출전망을 재고시켜 수출확장과 고용증가를 통한 성장율을 촉진시키며 물가하락 내지 물가안정을 통한 투자확대와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안정된 요인에 따른 급격한 폭락은 유통체계의 마비를 불러 잠시나마 수급에 차질을 줄 수도 있으며 길게는 新가격

카르텔과 금융위기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이 전개되어 제3의 석유위기가 닥칠 경우 그 방향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확산될 것이며, 그 경우 세계석유수급은 어떻게 변화되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량확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결과로 국제수지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리의 外債管理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을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금번 油價파동의 초점은 현물시장가격이 어느 선까지 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OPEC와 非OPEC 산유국들간에 과연 생산량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모아진다.

이 점에서 보면, 양자의 합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으나, 아직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영국, 노르웨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이 계속 가격을 내리고 생산을 늘리고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가격인하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면 먼 듯 하면서도 가까운 시간내에 산유량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같은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석유파동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희망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유가가 적당히 낮은 선에서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지난날 우리가 겪은 1·2차 석유위기의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우리 모두의 슬기가 요청되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청탁풍조 배격하여

명랑사회 이룩하자